

발해 건국 고구려의 유민들, 말갈과 함께 발해를 건국하다!

698년(고왕 1)



동모산 전경
/ 동북아역사넷(동북아역사재단) /

1 영주(營州)에서의 이탈

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은 고구려의 민들을 강제로 당으로 이주시켰다. 당은 고구려의 유력한 지배층들을 당 내지의 빈 땅으로 옮겨 그들의 인적, 물적 기반을 철저히 파괴하였다. 발해의 건국 주역들이 당의 영주(營州: 지금의 요령성 조양) 지역에서 처음 일어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였다. 696년 5월, 영주에서는 거란족 추장 이진충(李盡忠)이 당의 지배에 저항하며 영주도독(營州都督) 조문해(趙文翹)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진충은 스스로를 가한(可汗)이라 불렀다. 당은 즉시 조인사(曹仁師), 장현우(張玄遇), 이다조(李多祚), 마인절(麻仁節) 등 28명의 장군을 보내 토벌하게 하였다. 당은 이진충의 이름을 이진멸(李盡滅)로, 손만영의 이름은 손만참(孫萬斬)으로 바꾸는 등 적개심을 드러냈으나 9월이 되도록 성과는 없었고 오히려 이들에게 계속 패배하며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영주 지역은 당의 통제가 불가능한 혼란한 상황이 되었고 이 틈을 타 이곳에 강제로 옮겨졌던 고구려 유민을 비롯하여 거란족(契丹族), 해족(奚族), 말갈족(靺鞨族) 등은 탈출을 시도하였다. 대조영의 아버지인 걸걸중상(乞乞仲象)이 이끄는 집단과 걸사비우(乞四比羽)가 이끄는 집단은 이때 영주를 빠져나와 함께 동쪽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관련자료](#)

2 발해의 건국 과정

당이 거란의 공격을 막는데 집중하면서 걸걸중상 집단과 걸사비우 집단은 초반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동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당도 거란을 막는데 집중하였으므로 이들의 동향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다. 이들이 요해처를 마련하여 성벽을 쌓고 방어 체계를 공고하게 만들어 나가자 당은 걸걸중상에게 진국공(震國公)을, 걸사비우에게는 허국공(許國公)에 봉하여 회유를 시도하였다. [관련자료](#) 그러나 걸걸중상과 걸사비우는 다시 당의 지배 아래 들어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당은 우록금위대장군(右玉鈐衛大將軍) 이해고(李楷固)를 보내 이들을 토벌하게 하였다. [관련자료](#) 이해고와의 교전 중에 걸사비우가 죽자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의 무리를 통솔하여 천문령(天門嶺: 송화강의 지류인 휘발하와 혼하가 나뉘는 지점으로 합달령으로 추정됨)을 넘었다. [관련자료](#) 이 천문령 부근에서 대조영의 군사와 이해고가 이끄는 당군이 일전을 치렀다. 이 전투에서 이해고만 탈출하여 돌아왔다고 기록할 정도로 당군은 크게 패배하였다. 돌궐은 요동 지역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세력을 확장하고 거란과 해(奚)에 대하여 연합력을 행사하였다. 대조영도 이러한 가운데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